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7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협력의 원리를 가장 잘 지킨 것은?

- ① 가영: 시간이 없어서 지각하겠어. 빨리 이동하자.
나영: 그건 그렇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 ② 가영: 이번 통합사회 과목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줄래?
나영: 응, 교과서 2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야.
- ③ 가영: 다영아, 오늘 시험은 만족스럽게 봤니?
나영: (대화 중간에 끼어들며) 응! 난 진짜 잘 봤어.
- ④ 가영: 과제로 나온 독서 책은 전부 다 읽었니?
나영: 다 읽은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읽었냐고 묻는다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⑤ 가영: 나영아, 네가 알려 준 원소 기호 13번이 잘못된 것 같아.
나영: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수학 천재인 내 동생이 그렇다고 했던 말이야.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와 같은 담화 관습이 있다.

돌려 말하는 관습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한다.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겨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나)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동의의 격률: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체면 유지의 원리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

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한다.

2.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해강은 세운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 오시는 할머니.

할머니: (밥그릇을 건네주며) 아이고, 채린게 없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세운: 아, 아니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할머니: (웃으며) 뭘 소리여?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는디? 저기 더 있음게 모지라면 말혀.

세운: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

- ① 할머니는 실제 현상과 다르게 말하고 있으며, 이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을 따른 것이다.
- ② 세운이 ‘우와……. 대박!’이라고 감탄한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에 해당한다.
- ③ 할머니가 ‘저기 더 있음게 모지라면 말혀.’라고 한 것은 세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돌려 말하는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 ④ 세운은 할머니를 배려하여 ‘명절보다 더 많아요.’라고 말한 것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을 실천한 것이다.
- ⑤ 할머니가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다고 말한 것은 평소 과묵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을 지킨 것이다.

3. (나)를 참고하여 <보기 1>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면접관: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축제 운영진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저는 학교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관: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축제는 그동안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1936년부터 시작된 축제에 매년 30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 우리 학교 졸업생 중 현직 국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작가이시네요. 그리고 수리·과학 분야에서는 매년 이공계 교수님들과 함께 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예술·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축제 때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지원자: 저의 관심 분야는 인문·사회 분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인문학부 반장을 맡아 활동했고, 문학 체험 캠프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인문·사회 분야를 운영하고 싶어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인문·사회 분야에서 ‘나도 작가 교실’을 운영하여 축제 결과 보고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몇몇 댓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은 도서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운영진이 되어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영진과 갈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2>

- ㄱ. 지원자는 질문의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답변하고 있다.
- ㄴ. 면접관은 질문의 요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나열하고 있다.
- ㄷ. 면접관은 지원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 ㄹ. 지원자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게 답변하고 있다.
- ㅁ. 면접관과 지원자는 동의의 격률을 지켜 대화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 그르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로부터 전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말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 있어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기 위해 우리말 연구가 정셋별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말 연구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은 소중한 언어 유산이지요. 하지만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나 ‘꿀 먹은 병어리’처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들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을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자: 네. 일상에서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외에도 차별적인 표현을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 연구가: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이를 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의 ‘학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방문과 같은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행자: 네, 시대 변화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 거군요.

4. 우리말 연구가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담화 관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여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표현 방식
- ②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
- ③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익살스럽게 말하는 관습
- ④ 특정 성별이나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속담이나 표현
- ⑤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격언이나 속담

5. <보기>를 참고하여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을 오늘날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학부형) ⇒ ㉡ (학부모)

	㉠	㉡
①	상인	잡상인
②	혼혈아	다문화 가정 자녀
③	저출산	저출생
④	봉급쟁이	봉급생활자
⑤	외발자전거	외바퀴 자전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화 1)

윤희: 준석아,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준석: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윤희: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준석: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재훈: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

(대화 2)

윤희: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넌 어때?

이현: 그래? 내일이 국어 시험이었나?

윤희: 너무 떨리는데…….

이현: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

(대화 3)

윤희: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 줘.

이현: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대화 4)

윤희: 재훈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재훈: 오늘 학교 끝나고 가족들과 저녁 먹기로 했어. ㉣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무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 유명한 사람들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

윤희: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은 학교 끝나고 뭐 해? 저기 사거리 앞에 떡볶이집이 새로 생겼던데 혹시 시간이 되면…….

(대화 5)

엄마: (전화 통화를 하며) 너 지금 어디쯤 왔어?

윤희: (학교에서 막 출발하며) ㉤어, 그게…….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

- ① ㉠: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거나 명령조로 말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 ② ㉡: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 ③ ㉢: 상대에게 짐을 들게 하는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 ④ ㉣: 질문의 요지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⑤ ㉤: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말하고 있으므로 진실성을 추구하는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영: 수진아, 발표 원고 읽어 봤어?

수진: 당연하지. ㉠너, 원고 잘 썼더라. 특히, 최근에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유가 농경 사회 이전까지 생존을 위해 자주 옮겨 다니던 조상님들로부터 여행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은 정말 흥미로웠어.

진영: 아니야. 네가 좋게 봐 줘서 그렇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야.

수진: 내가 쓴 원고는 어땠어?

진영: 잘 읽었는데……. 우리 발표 주제가 '○○고 학생들을 위한 여행지 소개'인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먼 여행지를 많이 소개해서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수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부분을 줄이고 애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여행 가서 해보고 싶은 일'을 넣어볼까?

진영: 그런데 그건 발표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네가 제안한 설문 조사를 활용해서 '가고 싶은 우리 주변의 여행지 순위'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수진: 그래,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높은 순위 중심으로 소개할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역시 너랑 한 팀이라 정말 든든해.

진영: 아냐. ㉡나는 발표할 때 너무 떨어져서 실수가 많거든. 나아말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너랑 한 팀이라 다행이야.

수진: ㉠너 혹시 발표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그래?

진영: 응. 어떨 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열심히 준비한 내용도 기억이 안 나서 발표를 망친 적도 있어.

수진: 그걸 ‘말하기 불안’이라고 한대. ㉡나도 발표 전에 많이 떠는 편이어서 지난번에 국어 선생님께 고민 상담도 했거든.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어.

진영: 진짜? ㉢수업 시간에 너 발표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이던데. 너도 발표 때 긴장하는구나.

수진: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유명한 연설가들도 모두 ‘말하기 불안’을 겪는다고 하셨어.

진영: 네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 고마워. 그럼 우리 발표 연습을 내일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 ㉤내가 내일은 동생이랑 할머니 댁에 다녀와야 해. 여행지를 소개하는 부분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따로 연락을 해도 될까?

진영: 그래, 그동안 나도 원고를 좀 더 다듬을게.

7. 위 담화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발표 상황이다.
- 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 ③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대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 ④ 특정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⑤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논거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8. [A]에 나타난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진은 ‘진영’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통계나 수치 등 객관적 지표를 들어 응답하고 있다.
- ② 수진은 ‘진영’의 문제 제기에 동의와 공감을 표현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

이고 있다.

- ③ 수진은 ‘진영’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래 주장이 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④ 진영은 ‘수진’이 제시했던 해결 방안이 현재 상황보다는 다른 문제 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⑤ 수진은 ‘진영’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이 가진 우위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9. <보기>는 공손성의 원리(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원리가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다.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다.
-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린다.
-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 동의를 격률: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

- | | | |
|---|--------|--------|
| | ㉠ | ㉡ |
| ① | 찬동의 격률 | 겸양의 격률 |
| ② | 찬동의 격률 | 관용의 격률 |
| ③ | 관용의 격률 | 겸양의 격률 |
| ④ | 찬동의 격률 | 동의를 격률 |
| ⑤ | 관용의 격률 | 찬동의 격률 |

10.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의사소통 규칙에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대화 상황에 맞도록 말하는 관련성의 격률이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화자가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깬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대화함축'이라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나영은 시험 범위를 묻는 가영의 질문에 교과서의 구체적인 페이지 수를 들어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이는 대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과 주제에 맞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모두 지킨 발화이다.

- ① 나영은 가영의 발화와는 관련이 없는 점심 메뉴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 ③ 다영이에게 한 말에 나영이 끼어들어 말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를 잘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영은 책을 읽었는지 묻는 말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 ⑤ 나영은 객관적 증거 없이 주관적 믿음만을 근거로 사실인 양 단정하였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2. 정답 ①

<보기>의 할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린 것이 없어 먹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공로를 최소화하여 표현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 ②, ⑤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해당 발화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관습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세운의 말은 할머니의 정성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으므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3. 정답 ②

ㄱ. 지원자는 면접관이 하는 질문의 의도에 맞춰 자신의 경험과 포부를 조리 있게 답변하였으므로 대화의 맥락을 잘 유지하고 있다.

ㄴ. 면접관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학교 축제의 역사나 졸업생 이야기 등 지원자가 알 필요 없는 정보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하여 양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ㄷ. 지원자는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나 댓글 반응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쳤으므로 질의 격률을 준수하였다.

ㄸ. 면접관은 무례한 표현을 쓰거나 지원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ㄹ.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려야 한다는 동의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는 대화이다.

4. 정답 ④

대화 속 우리말 연구가는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나 '꿀 먹은 병어리'와 같은 속담을 예로 들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 성별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언어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①, ②, ③, ⑤ 윗글의 우리말 연구가가 지적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①

'상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뜻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반면, '잡상인'은 '잡(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상인을 잡상인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혼혈아'는 혈통주의적 차별이 담긴 말이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저출산'은 인구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뉘앙스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꾸는 추세이다.
- ④ '봉급쟁이'는 비하의 의미가 있으므로 '봉급생활자'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 ⑤ '외발자전거'는 신체적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물의 특성을 살린 '외바퀴 자전거'가 적절하다.

6. 정답 ③

㉞에서 윤희는 보고만 있지 말고 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

이 되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다.

- ① ㉔는 책을 읽으라며 명령조로 충고하여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켰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 ② ㉖는 '한심하다'라는 말로 상대를 비난하였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④ ㉔는 식당 예약 정보 등 묻지 않은 과한 정보를 나열하였으므로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 ⑤ ㉔는 아직 학교임에도 집에 거의 다 왔다고 거짓 말을 하였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7. **정답** ③

제시된 대화에서 진영과 수진은 '발표 준비'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 ①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발표가 아닌 두 학생간의 발표 준비 대화이다.
- ② 전문가들이 아닌 학생의 대화이다.
- ④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⑤ 상반된 입장에서 논쟁하는 토론이 아니라 협력적인 대화 상황이다.

8. **정답** ②

[A] 부분에서 수진은 진영이 여행지가 너무 멀다는 점을 지적하자 동의와 공감을 표시하며, 새로운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객관적 지표를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 ③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 ④ 진영은 수진의 해결 방안이 다른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수진은 수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며 동의하고 있다.

9. **정답** ①

㉑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극대화한 것이므로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㉒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의 격률에 해당한다.

- ②, ③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 말하기 원리로, ㉑ 및 ㉒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동의를 격률은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는 것으로 ㉑ 및 ㉒과는 관련이 없다.
- ⑤ ㉑과 ㉒에 해당하는 격률을 서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10. **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대화함축'은 표면적인 의미와 다른 숨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는 것이다. '진영'이 '내일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수진'은 '예/아니오'로 직접 답하지 않고 '내가 내일은 동생이랑 할머니 댁에 다녀와야 해'라고 답한다. 이는 일정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절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대화함축에 해당한다.

- ①, ②, ③, ④ 대화의 맥락에 맞는 대답으로, 대화함축으로 보기 어렵다.